

# ‘반반행보’에 지지율 반토막... 현실 정치 벽 못 넘고 퇴장

## 반기문 20일만에 전격 불출마 선언 왜?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 수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1일 본격 정치 입문 20일 만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애매한 정치행보와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20일 간 한 차례도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끝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한 때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이란 타이틀과 비(非)정치인 출신이란 신선함이 기존 정치권에 익숙한 국민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20일 귀국 전 한국 기자단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교체와 패권주의 청산, 대통령을 주장하며 대권행보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20여일 동안 각종 구설수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지지도는 반토막이 됐다. 돌파구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반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개헌추진협의체’를

## “정치권 인격살해식 음해”

## ‘개헌추진협’ 싸늘한 반응

## 연대 모색 여야 모두 등돌려

던졌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반 전 총장은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정치권의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를 꼽았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전부터 아권의 공세에 시달렸다.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동생과 조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무관하다며 수사 레를 쳤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퇴주란 논란’은 반 전 총장 측이 꼽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 사례다. 선전 묘소에 성묘하는 동영상의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실수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특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나쁜 X들”이란 말을 남기며 논란 거리를 만들었다.

또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교체, 분권형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고리

로 한 정치권의 연대는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가 ‘리브콜’을 보낸 야권 인사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심지어 고향인 충청권 의원들조차 합류를 망설였다. 세(勢)가 형성되지 않으니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 세가 형성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 합종연횡을 시도했지만 분명한 행보를 요구하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입장과 현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으로 반 전 총장과의 연대를 염두에 뒀던 정치세력들 등을 들렸다. 반 전 총장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겠다는 과욕을 부렸다. 이는 오히려 보수와 중도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장민심이 초기 순수한 모습에서 변질됐다”고 말하는 등 촛불민심에 배척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지지율 1위 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는 ‘배신자’ 이미지 공격을 받았고 대선 출마자격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도하자는 반 전 총장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내 정치상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뒤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 어두운 데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은 캠프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무소속으로 버티기에는 인력·조직·자금 등 모든 측면에서 압박을 받았으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반기문 지지 표심 어디로

### 문재인 “대세론 더 힘 받을 것”

### 안희정 “충청권 대망론 탄력”

### 안철수 “반전의 계기 잡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조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느 진영으로 이동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범여권의 유력 주자가 낙마하면서 아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경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반 전 총장의 낙마가 결국 ‘문재인 대세론’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력한 견제 주자가 낙마함에 따라 여권 및 중도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문 전 대표의 질주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진영에서는 반 전 총장의 낙마로 ‘충청대망론’의 반사 이익을 보는 등 경선의 태풍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는 안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안정적이고 중도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반 전 총장 지지 표심이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 명질 직후에 반 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견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그가 주장했던 대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일대일’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에게 쏟았던 중도 및 보수 진영의 표심 흡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학규 의장과 정운천 전 총리도 반 전 총장의 낙마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불출마는 중도 진영 후보들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 전 총장 불출마 이후 중도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다면 제3지대론이 대선 구도를 뒤집을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론은 소멸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

## 황교안이 유일한 대안?

### 범여 보수권 충격

### 새누리 황에 구애 메시지

### 바른정당 낙수효과 기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범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한순간에 ‘보수 진영 1위 후보’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의 예기치 못한 낙마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범여권 후보 중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형국이 됐다.

하지만, 오히려 범여 보수권에 분명한 상황이 전개돼 더욱 명확한 대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분석도 있다.

일단 범여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보수지지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반 전 총장을 대체할 카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기존 보수층 후보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보여왔다.

때문에 반 전 총장을 지지하던 표심이

황 권한대행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수와 중도 중 분명한 색깔을 보이지 않은 반 전 총장과 달리 황 권한대행은 확고한 보수 색채를 띠고 있어 보수층 지지율 흡수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황 권한대행에게는 “우리 당원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세력이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1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며 “당연히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겠다”며 구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바른정당은 연대·통합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라는 확실한 대선후보를 보유하고 있어 반 전 총장 불출마에 의한 ‘낙수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이 황 권한대행에게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과 남 지사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 시대의 비너스 누가 추대될 수 있을까



(173) 비너스

우리가 종종 완벽하리만치 아름다운 여성에게 하는 최고의 찬사로 ‘여신 같다’고 표현할 때 그 ‘여신’은 아마도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의미할 것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미의 표준을 끌어 올린 여배우에게도 굳이 여신을 끌어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비너스가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이거나 이상상(理想象)이기 때문인 것 같다.

미술사에서 비너스의 원형은 기원전 3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여인상만 해도 예쁘다 하기 보다는 풍만한 가슴과 배가 과장되어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다. 미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아름다운 비너스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이후이며, 아름답고 관능적인 비너스의 모습은 르네상스 회화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 패러디되어 논란이 되었던 작품의 원작인 마네의 ‘올랭피아’도, 마네가 영향을 받았던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도 모두 비너스 회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들이다. 티치아노(1488~1576)의 작품 ‘우



‘우르비노의 비너스’

르비노의 비너스’(1538년 작)는 우르비노의 공작 귀도발도 델라 로베레 2세가 의뢰한 것으로 어깨 위로 긴 머리 카락이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관능적인 모습에서 앞선 세대의 그림인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와 비견된다. 황혼의 부드러운 빛은 여주인의 옷을 찾는 듯 보이는 두 시녀와 시트 위 강아지를 밝게 비추고 있다. 당시 티치아노의 예술적 기법은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육체의 아름다움과 관능미의 기준이 되어 후세의 대가들로 즐겨 모방했다. 지난해 사망했던 기초화학자 움베르토 에코(1932~2016)는 저서 ‘미의 역사’에서 옷을 입은 비너스와 옷을 벗은 비너스를 연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현대적 비너스로 마릴린 먼로를 명단에 올려놓았다. 아름다움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에코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대엔 또 누가 추가될 수 있을까 지켜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